

광주 수출입기업 59% “환율 급등, 경영에 부정적”

광주상의, 지역기업 영향 조사
생산단가 상승·환차손 등 어려움
원가절감·단가 조정 등으로 대응
“금융지원·환리스크 관리 확대를”

광주지역 수출입업체 10곳 중 6곳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현황 등을 파악하

기 위해 광주지역 수출입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59.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해 ‘긍정적(24.0%)’, ‘별다른 영향 없음(17.0%)’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생산단가 상승(27.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수입결제시 환차

손 발생(20.0%)’, ‘해외거래처 납품단가 인하 압박(7.0%)’, ‘운송비 부담 가중(5.0%)’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업체들이 사업계획 수립시 적용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이상 1350원 미만(35.0%)’ 수준이었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손익분기점 환율 또한 ‘1300원 이상 1350원 미만(28.0%)’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환율 상승에 대한 대응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업체들이 ‘원가 절

감(39.0%)’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수출입단가 조정(25.0%)’, ‘수출입물량 조절(18.0%)’, ‘제품가격 인상(15.0%)’, ‘국내원자재 수급(14.0%)’, ‘수출수입처 다변화(12.0%)’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 또한 21.0%를 차지했다.

환율 불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확대(49.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책금융 지원 확대(47.0%)’, ‘물류비 지원(42.0%)’, ‘(국산화,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지원 확대(14.0%)’ 등도 시급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등 경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지원 확대, 환리스크 관리 지원 등과 더불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 제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가성비’ 도시락 제품 선보

소고기 덮밥·주먹밥 등 판매

광주신세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 제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2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지하 1층 식품관 ‘도리근 덮밥’은 돼지고기 덮밥과 소고기 덮밥을 가성비 메뉴로 추천한다. 매장에서 직접 구운 재료를 얹어주는 도리근 덮밥은 돼지고기 덮밥(7900원), 소고기 덮밥(8900원)으로 든든한 한끼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가벼운 한끼로는 돼지고기 미니 덮밥(4900원), 소고기 미니 덮밥(5500원)이 어울린다.

롤·주먹밥 전문점 ‘하루’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고기 주먹밥(3500원)과 참치주먹밥(3000원) 등을 선보인다. 신선한 샐러드와 연어를 담은 하루연어포케(1만2000원)는 맛과 건강

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성수동 샐러드 맛집’으로 유명한 ‘르베지앙’ 역시 맛과 건강을 챙긴 가성비 도시락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중에서도 신선한 샐러드와 새우를 귀리밥과 함께 맛볼 수 있는 새아불(1만2500원)이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두부랩은 탄수화물을 지양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으로 7900원에 판매 중이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런치 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도시락 등 가성비 제품을 추천한다”며 “광주신세계에는 맛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여러 메뉴가 있으니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본격화... 복합쇼핑몰 속도

더현대광주, 토지 매매 잔금 납부 삼성물산 등 6곳 아파트 건설 의향

옛 전방·일신방직터에 복합쇼핑몰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더현대광주’가 2100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 잔금을 납부했다. 또한 삼성물산·현대·대우 등 1군 건설사 6곳이 아파트 건설 의향을 밝히면서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시와 챔피언스시티북개발 에이앤씨에 따르면 ‘더현대광주’가 지난 26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3만3000㎡·1만평) 매입 대금의 잔금 2135억7743만9000원을 개발사 측에 납부했다. 더현대광주가 복합쇼핑몰 건설 의향을 밝히며 미리 납부한 토지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533억9200만원을 더하면 2700억원 규모이다.

잔금 납부에 앞서 지난해 2월 600억원을 출자해 점포 개발과 개점 이후 운영을 맡게 될 현지 법인을 설립한 더현대 광주는 토지매매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8년 개장을 목표로 복합쇼핑몰 건립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건축·경관 심의도 통과해 북구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건축 승인까지는 수개월 정도 소요돼 착공은 올해 상반기에 가능하다.

‘더현대광주’는 부지면적 3만2364㎡에 높이가 60m, 길이 201m, 폭 116m의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4079㎡ 규모의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규모로만 보면 더현대 서울의 1.5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다. 더현대광주 토지매매 완료와 함께 최근 1군 건설사 6곳이 주택(아파트) 개발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은 29만6340㎡ 부지에 4328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개발사 측에 의향서를 제출했다.

개발사 측은 6개 사의 견적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통한 ‘아트 앤 컬처 파크’, 어등산관광단지에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나다운 기자

삼성전자, ‘iF 디자인 어워드 2025’서 58개 수상

제품·UX·UI·콘셉트 부문 등 두각

삼성전자가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5(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5)’에서 금상 2개를 비롯해 총 58개의 수상작을 배출했다.

1953년 독일 인터네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패키지 △사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UI) △콘셉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에서 차별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삼성전자는 홈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Ballie)’와 소형 포터블 프로젝터의 패키지 디자인 ‘보자기(BOJAGI)’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를 포함해 제품 부문에서 36개, UX·UI 부문에서 8개, 콘셉트 부문에서 9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4개,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1개 등 총 58개에서 상을 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볼리(Ballie)’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일정 관리, 가전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홈 AI 컴패니언(Companion)’ 로봇이다. 세계 최초로 두 개의 프로젝터를 탑재

해 근접 투사와 원거리 투사를 자유롭게 지원하는 이동식 로봇 프로젝트로 올해 상반기 국내 출시 예정이다.

‘볼리(Ballie)’는 사용자와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는 형상으로, 친근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작고 둥근 외형에 노란색과 부드러운 재질감을 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 다른 금상 수상작 ‘보자기(BOJAGI)’는 소형 포터블 프로젝터의 선행 콘셉트 패키지로, 보자기라는 한국 전통 도구에서 영감을 받아 자투리 천을 활용해 특별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특히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모양의 제품을 지속가능하게 포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금에 대한 의문... “과연 안전자산인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저 없이 금(金)을 지목한다. 금은 변동성이 작은 대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모두 방어하는 안전 자산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금값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연 금이 안전자산인지 의문이다. 지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에 대한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10여 년간 별다른 변동 없이 온스당 35달러 정도에 고정되어 있던 금값은 1979년

800달러를 돌파 함으로써 8년 동안 무려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무색할 정도의 큰 변동 폭이다. 그 후 금값은 미연준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하락으로 돌아서더니 3년이 지난 1982년 온스당 300달러 정도로 폭락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800달러에 도달하는데 그 시간이 25년이 소요됐다.

상식대로라면 경제위기 때 안정적이야 할 금값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값은 S&P5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며 불과 3달 만에 900달러에 700달러까지 추락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최근 5년간에는 나스닥 등 주가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금리가 인상되면 금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금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았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국내 금융권의 한 인사는 최근 ‘금의 정체성은 안전자산에 고정시키는 것 보다 달러 가치와 금리를 동시에 적용 시킬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세에 있어 강달러가 실현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약달러가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자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일 때는 금값이 더 비싸진다.

금값은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 더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움직인다. 현재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된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약달러 및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중국 등 각국에서 금을 현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금이 달러에 대비되는 가장 믿을 만한 실물화폐인 것은 분명하다.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약달러 시대가 다시 온다면 금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